

신비와 정염, 기품 어린 나무를 사랑한 화가들

동서양 미술에서 형상화된 나무

오광수 |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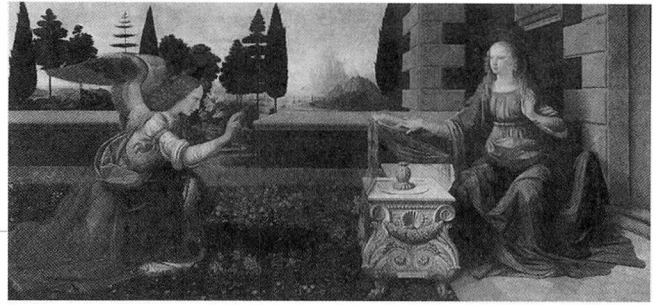
나무를 형상화한 미술작품은 동서양을 통틀어 그렇게 많지 않다. 특히 나무만을 다룬 작품의 예는 극히 드물다. 서양미술에서는 주로 인물을 중심 모티브로 삼아 역사가 오랜 만큼 나무를 독자적으로 묘사한 작품은 오랫동안 자연을 회화의 중심 모티브로 다뤄온 동양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

르네상스 시대에 풍경의 주요한 인자로 나무 등장해

서양이 자연을 풍경적 소재로 취급하기 시작한 것은 르네상스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은 독자적인 풍경이 아니고 단순히 어떤 설화적 내용이나 신화적 주제의 배경으로 가까스로 취급됐을 뿐이다. 중세의 기도서나 제단화에도 풍경적인 배경이 가끔 나타나고 거기 나무가 그려지고는 있지만, 풍경의 주요한 인자로서 나무가 의식되기 시작한 것은 르네상스시대의 몇몇 작품에 국한될 뿐이다. 보티첼리가 그린 <비너스의 탄생>의 배경에는 바다와 육지가 등장하는데 육지를 뒤덮고 있는 것이 나무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수태고지>에서도 나무가 주요한 배경으로 나타난다. 티치아노의 <비너스와 울간 연주자>의 배경은 숲으로 울창하다. 북부 르네상스의 대표적인 화가인 부루겔과 뒤러의 작품 속에는 나무가 숲의 일부로서만이 아니라 나무의 객체성이 훨씬 리얼하게 묘사되고 있다. 뒤러의 <나무가 있는 풍경> 같은 예는 단연 나무가 풍경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17세기, 18세기의 왓토, 게인스보로, 푸생의 배경으로서의 숲과 코로와 프리드리히의 풍경 속 나무와 숲은 더욱 정감적이고 신비로운 대상으로 취급되고 있다. 풍경이 독자적인 장르로서 활발히 그려지던 19세기의 인상파 시대에는 그만큼 나무가 화폭에 등장하는 빈도도 높아지고 있다. 모네의 <포플러나무> 시리즈나 세잔의 액상프로방스의 풍경 가운데 등장하는 소나무는 남불 특유의 풍광 속에 한결 신선함을 더해준다. 고희의 <밀밭과 사이프러스나무>를 위시한 일련의 사이프러스나무는 그의 불꽃같은 정염을 대변해주는 대상이기도 하다.

동양에서도 나무는 먼저 자연 속의, 풍경의 한 인자로서 나타난다. 대자연의 모티브로 한 산수화는 바위와 수목으로 뒤덮인 장면을 펼쳐 보이고 있다. 산수화가 회화의 중심장르로 확립되기 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수태고지>

작한 송(宋)대에는 여러 가지 수지법(나뭇가지 그리는 법)이 나타나고 있으며 원(元), 명(明) 시대에는 수목화의 화제로서 소나무의 등장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 소나무, 대나무, 매화나무는 문인 사대부의 고결한 정신과 기품을 나타내는 대상으로 인식돼 그리는 방식의 틀이 여러 갈래로 고안됐다. 송대의 이 성(李成)이 그린 <한림평야도>는 나무가 중심이 된 산수화며 명대의 문징명(文徵明)이 그린 <고목하천도>에서는 나무의 개체성이 화면을 구성하는 요체가 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삶과 여유를 제공하는 대상으로 나무 묘사돼

조선조의 뛰어난 화가인 심사정의 <산수>나 김두량의 <월야도>는 나무가 산수의 일부나 배경으로서가 아니라 나무가 있는 풍경으로서 그 주체가 바뀌고 있다. 특히 조선조의 산수화 가운데는 나무 아래 선비들이 한유하는 장면들이 적지 않다. 나무 아래 모여 앉아 바둑삼매에 빠져 있는 장면도 나온다. 나무가 만드는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이나 동물은 한결같이 휴식이나 놀이나 명상의 순간으로 포착되고 있다. 그만큼 나무는 인간에게 삶의 여유를 제공하는 대상으로 묘사된다.

조선시대에 나무를 뛰어난 화가로 잘 그린 화가로는 김홍도와 정선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은 중국의 화보그림에서 벗어나 우리의 산천을 직접 사생한 이른바 진경산수의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한국의 자연이 간직한 독특한 공기를 나무를 통해 포착해주고 있다는 데서 진경 산수화가로서의 면모를 더욱 돋보이게 하고 있다. 특히 김홍도의 <송하유록> <소림명월도>나 정선의 <노송도>는 나무를 통해 회화의 기본이 되는 기운생동(정신적 바이탈리티)이 구현되고 있어 신선함을 더해준다.

현대에 와서 나무를 많이 그린 이는 단연 박수근이다. 독학으로 화가의 길을 걸은 그는 들녘에 나가 나무를 그리는 것으로 화가수업을 시작했다. 그의 그림에 표현된 나무는 다 떨어진 나뭇잎이 대부분이다. 앙상한 나무의 골격을 파악하면서 사물의 구조와 자연의 원리를 스스로 터득해간 것이다.■

오광수 관장은 홍익대 회화과를 졸업했다. <공간> 편집장, 한국미술평론가협회 회장 등을 역임했고,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으로 재직중이다. <추상미술의 이해> <한국현대미술 비평사> 등을 펴냈다.